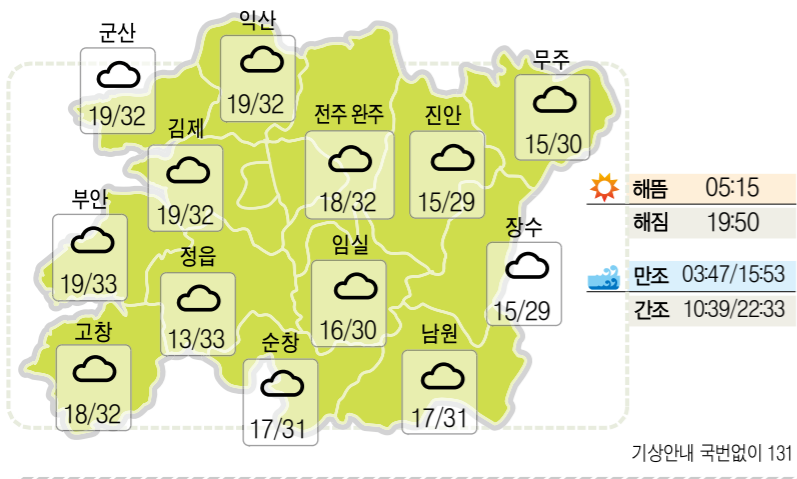


전북의 새 리더십, 성장의 청사진을 실행으로

오늘의 날씨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짐
아침 최저: 15~19, 낮 최고: 29~3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그린테크라이프 이용 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1~3월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4월 107건, 5월 10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사유는 제품 배송 지연이나 환급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86.7%(1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환위(8.3%), 단순문의(2.8%), 가격요급(1.8%), 품질 문제(0.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12만9000원을 결제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주문했지만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됐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송 지연과 환급 불이행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판매자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현금이나 계좌 이체보다 신용카드 결제 이용할 것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보증 범위와 기간 등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반품 요청 시 기록을 남기며, 제품 수령 직후 하자 여부를 확인해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주문정보, 결제내역 등)를 보관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번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구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 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북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또 하나의 전환점에서 있다.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 주도 성장'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이제 이를 실질적인 성장과 도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며, 그 성패는 새로운 리더십의 비전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금융산업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만의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자적 성장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다.

금융도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축과 전주 금융축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전북 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전·광주 등 인접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도 필요하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은 새만금이다. 이제 새만금은 더 이상 장기 개발사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적되는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

경제칼럼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루려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데야”

공학과 신항만, 산업단지과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한다면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역시 전북이 선도해야 할 분야다.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는 환경정책을 넘어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서해안의 풍부한 풍력·태양광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북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가 더해진다면 호남권 전체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본이 다시 지역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전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고 정착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산업과 교육, 창업과 주거가 연결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이제 전북은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독자 성장과 광역 협력의 균형을 통해 새만금과 금융도시,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정착이라는 과제를 실행해 나갈 때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과 도민 역량의 결집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자 지역 주도 대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전북의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끝이 아닌 새 출발점 '전북 발전' 깃발 아래로

기고



김정호
변호사

인구와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100만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어야만 정부의 초광역 지원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기업들이 매력력을 느낄 만한 배후 시장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주·완주·익산의 연합은 전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가장 확실한 엔진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이다. 이제는 내부 개발을 넘어, 새만금의 효과를 전북 내륙 전체로 확산시킬 강력한 '배후도시'의 완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인프라와 전주·완주·익산을 잇는 고속 교통망을 촘촘히 다지고, 배후 지역에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공장 유치의 시대는 지나갔다.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물리적 자산이 결합

된 '물리적 AI(Physical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전북으로 끌어와야 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완주·전주 등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기업들이 매력력을 느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맞춤형 부지 제공 등 전방위적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쳐야 한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수준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전북의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법 주권의 상징인 '헌법재판소'의 전북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유치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공단 유치가 전북 혁신도시의 지형을 바꿨듯이, 대형 공공기관과 핵심 국가기관의 유치는 전북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방대한 유동 인구와 유관 산업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다. 전북의 대전환을 위해 지금 함께 움직여야 한다."

광역도시권 형성과 새만금 배후도시 완성, 그리고 국가 핵심 기관 유치라는 담대한 도전, 새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흐름을 완벽한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 우리 전북도민의 단합된 힘에 달려 있다.

全北日報 The Jeonbuk Ilbo www.jiban.kr

회장/발행인 **서창훈** 사장/편집인 **윤석정** 주필 **백성일** 편집국장 **전오열** 인쇄인 **김영석**

(우)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관음동, 우석빌딩) 대표전화 250-5500 편집국 250-5560~95
구독신청·배달 063-250-5655 중역실 250-5510~3 FAX 250-5580, 5590
광고접수 063-250-5622 FAX 063-250-5640 논설위원실 250-5520~2 서울본부 02-778-2071~3
기사제보 (사회)250-5582~3 (누미)미)250-5617 경영기획국 250-5531 FAX 02-778-2076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구독료/월 15,000원/1부 800원
1950년 10월 15일 창간(4과) / 1973년 5월 31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01

*외부 필진의 글은 본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6년 6월 15일 총사원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원 중 금9,99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1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사원이 소유하는 출자좌수 총수에 대하여 감소하는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유한회사 디자인지니
전주시 덕진구 반촌로 43,1층(전북동)
이사 임지 훈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유한회사 힐링타임은 2026년 5월 31일 개편된 총회에서 유한회사 헤일로즈를 흡수합병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 (계출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0 (중화산동 2가 268-31) ☎ 063-237-3544, Fax 0504-376-2755)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6일

유한회사 힐링타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0
대표이사 조기 정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유한회사 헤일로즈는 2026년 5월 31일 개편된 총회에서 유한회사 힐링타임에 흡수합병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 (계출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0 (중화산동 2가 268-31) ☎ 063-237-3544, Fax 0504-376-2755)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6일

유한회사 헤일로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0
대표이사 조기 정

全北日報 전주시내 구독신청

전주	중앙동, 태평동, 고사동, 다가동, 남노송동, 경원동, 교동, 풍남동, 서학동, 평화동, 동서학동, 색장동	063-284-7714 010-4169-0536
서전주	효자 1·2가, 효자 2·3·4동, 중화산동, 서완산동, 도청, 한방병원 부근	010-3655-2380
동전주	우아동, 아중지구, 산정동, 금암2동, 해금장땀땀, 전주역부근	063-252-2232 010-2698-7476
북전주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장동, 송천동, 서부우회도로공단 부근, 혁신도시, 에코시티	063-254-0394 010-3015-6496
중앙	금암1동, 덕진동, 호성동, 진북1동, 서노송동, 중노송동, 인후동, 전북대병원, 한전, 전고 부근	063-252-2232 010-2698-7476
진북	진북동, 서신동, 학생회관, 세무서, 덕진구청 부근	063-252-2232 010-2698-7476
삼천	삼천동, 완산동, 동완산동, 중인동, 상산고, 풍남중, 효천지구, 서부시장 부근	010-2698-7476

정읍시 광고 제2026-89호

(특정)빈집 조치명령(철거명령) 제공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하여 철거명령을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정읍시청

- 공고명: (특정)빈집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고대상: (특정)빈집 소유자(관리자)

연번	소유자(관리자)	위치	용도	구조	조치내용
1	미상	정읍시 신대인물 신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물 정교2길 42)	창고	목구조	빈집철거
2	미상	정읍시 신대인물 신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물 정교2길 40)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3	미상	정읍시 신대인물 우정리 42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4	미상	정읍시 신대인물 우정리 90	주택 등	목구조	빈집철거
5	미상	정읍시 정우면 화천리 553-4	주택 등	목구조	빈집철거
6	미상	정읍시 정우면 화천리 553-1, 553-3	주택 등	시멘트블록조	빈집철거
7	김기	정읍시 용동면 산성리 59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8	권기철	정읍시 농소동 350-1	주택 등	목조	빈집철거
9	오오준	정읍시 망재동 829	주택 등	시멘트블록조	빈집철거
10	미상	정읍시 이항면 청동리 183-1	주택	목조	빈집철거

4.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8. 18. (63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시읍면 및 정읍시청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상기 (특정)빈집에 대하여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직권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63-539-8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全北日報社

구독문의

063-250-5655

fax. 063-250-5640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정 누수 없이”

김관영 도지사, “유종의 미 위해 도정 핵심 사업의 완수· 단단한 도정 당부... 민선 8기 마무리 총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8기 핵심 도정 현안의 성공적 마무리 방안과 새 만큼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지출 구조조정 등 도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8기 핵심 도정 현안의 성공적 마무리 방안과 새만큼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지출 구조조정 등 도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주요 과제의 연속성 확보와 차질 없는 마무리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2027년 국가예산 삭감을 막아내고 신규 공모사업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차의 8조 9,000억 원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 조율 금융 중심지 올림피아 유치 등 주요 과제를 짚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쟁점이 새어 나가지 않고 민선 9기 도정으로 단단히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새만큼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매립 면적이 조정되고 목표 연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지는 새만큼 MP 전면 재검토 동향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담긴 MP 실행력 제고 방안”을 건의하고, 계획 재수립이 늦어져 새만큼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대책도 구

체화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흐름에 보조를 맞춰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손질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해 세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직접 나서 사업 전반을 촘촘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6월 말부터 7월 초로 이어지는 도정 전환기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맡은 업무를 철저히 챙겨달라”며 “금융중심지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민선 8기 동안 쌓아온 값진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책임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계속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부담 댄다

도,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 이달 말까지 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지원과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시설과 집기는 최대 3,000만원, 재고자산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기존 풍수해보험 지원제도에 더해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기간 내 풍수해보

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풍수해보험 가입과 함께 자부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시군 핵심사업 특례 발굴 본격화

전문가 컨설팅 통해 입법 논리 보강... 피지컬AI·자율주행·웰니스관광 등 미래 성장동력 특례 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5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핵심사업의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특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입법 논리를 구체화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캠퍼스융합기술

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컨설팅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이 제안한 4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분야 육성을 위해 실증단지 지정 근거 마련과 입시허가·실증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산업 실증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산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신약그린형 무인 자율주행 이동수단 시범사업 추진과 독자적인 인증·운영 권한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과 부동산투자인계 적용 확대 특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퇴 인구와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협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 논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위임 등 사후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7월에는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시군 핵심 특례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견인할 주요 과제”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 예방·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 나섰다.

기념식에는 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노인학대 예방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노인학대사태관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운 변호사가 ‘학대 피해노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및 지

원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대응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는 지난 1일과 10일 순천시장, 전북대학교 구정문 부안군 홈마트 일원에서 홍보물 배부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노인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현장조사, 보호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점검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위원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과 안전점검 계획을 검토하고, 실증 추진 일정과 계획의 적정성,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농생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3

개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실증 단계부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실증사업별 안전관리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증사업 추진 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구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여름철 해수욕장 수질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질조사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고창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부안 격포·고사포·모항·변산·위도해수욕장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장염 등 수인성 질환과 관련 장구균과 대장균이다.

조사는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부터

폐장 후인 9월까지 진행된다. 도내 해수욕장은 오는 7월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7월 10일 군산시와 고창군이 개장할 예정이다. 도는 개장 전 수질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 개장 여부를 결정하고, 개장 기간 중 수질 이상이 확인되면 입욕금지 안내방송과 경고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조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공개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6-89호

(특정)빈집 조치명령(철거명령) 재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해 소유자의 소세록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해 철거명령을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특정)빈집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번번	소유자(관리자)	위 치	종도	구조	조치내용
1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정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동 향교2길 42)	창고	목구조	빈집철거
2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정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동 향교2길 40)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3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평항리 42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4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우항리 90	주택	목	빈집철거
5	미상	정읍시 황우면 차진리 553-4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6	미상	정읍시 황우면 차진리 553-1, 553-3	주택	목	빈집철거
7	김○기	정읍시 황우면 신대리 59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8	김○철	정읍시 능소동 350-1	주택	목	빈집철거
9	오○준	정읍시 양계동 829	주택	목	빈집철거
10	미상	정읍시 이양면 정동리 183-1	주택	목	빈집철거

- 공고대상: (특정)빈집 소유자관리자
- 공고기간: 2026년 6월 16일~8월 18일(63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개시판 및 정읍시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상기(특정)빈집에 대해 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처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3-539-8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